

과학기술분야 청어람(靑於藍)을 바라며

글_이은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unil@korea.ac.kr

‘순 자(荀子)에 ‘청출어람 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이 라는 말이 있다. ‘푸른 물감은 쪽에서 나오지만 쪽빛 보다 푸르다’는 말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뜻이다. 스승 보다 나은 제자를 키우는 것은 우리 나라 과학 기술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스승 보다 나은 제자를 키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닌 듯 하다.

우선은 키울 제자가 없다. ‘이공계 기피현상’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IMF관리를 경험한 후 의사, 교사 등의 안정된 직장 선호가 더욱 강화돼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기초의학은 ‘이공계 기피현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의과대학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이공계 발전에서 제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임상의학만을 선택하고 기초의학의 존재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기초의학은 다른 어떤 학문분야보다 제자를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기초의학을 포함해 이전부터 손을 사용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이공계 연구업종은 법, 행정, 경제, 정치, 경영쪽과 비교하여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공계통보다는 이런 분야들이 사회의 지도급 인사가 되고, 급여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 이런 분야에 비하면 이공계통이나 기초의학은 3D업종처럼 기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때 생명과학 벤처 등의 붐이 일어났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IT 및 여러 기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이공계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공계통에 대한 여러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 연구비 제도의 개선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공계통과 기초의학분야

의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경쟁력 높이려면 연구비 제도 개선돼야

미국이 초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과 대학원의 강한 경쟁력 때문이며 이런 경쟁력은 연구비제도에서 나온다. 같은 대학의 교수라고 하더라도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뛰어난 교수들은 급여가 훨씬 높다. 급여 자체가 연구비를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비에서 교수들의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될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 국책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하면 급여가 높아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아직 대학이나 사립 연구소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지혜로운 교수는 자신의 능력보다 적은 연구비를 받아 적당하게 논문을 만들고 남은 시간 여유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의 뛰어난 과학자를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모시려면 막대한 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일이 많은 교수는 피하려고 한다. 그런 교수 밑에서 일을 해도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구비 제도는 영수증 처리가 중요하지, 과학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풍성한 인건비와 해외 학회 참여 등을 보장하고,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좋은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제자들을 위해 교수가 쓸 수 있는 연구비는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BK21을 통한 지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BK21뿐 아니라 전연구비에 이런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대학에서 석, 박사 학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사실 거의 없다. 석, 박사 학위도 대학 교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이공계통이나 기초의학분야에서 외국 대학의 박사 학위 없이 대학에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많은 대학의 교수 채용 조건에 '영어' 강의를 필수로 하거나, 외국 우수대학 박사학위 소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지금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실정에서 새로운 교수 충원도 힘들기 때문에 연구교수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학에서 교수에 준한 처우를 연구교수에게 해주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연구프로젝트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을 뿐 의료보험, 연금 등은 모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정식 교직원이 아닌 애매한 상태의 연구교수이고, 미래의 더 큰 발전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경쟁력있는 연구를 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대학강사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연구교수에 대한 처우도 심각한 문제다.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학벌을 좋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가치를 두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수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대학에 남을 수 없고, 다시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해야만 대학에 남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과학자를 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외국대학 출신이든 국내 대학 출신이든 얼마나 좋은 연구논문을 냈는지에 따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신보다 연구논문으로 평가받는 시스템 시급

이렇게 제자를 기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이나 연구소 자체는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듯하다. 기자재나 실험방법은 발전하였어도 스승과 제자 관계는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권위로 상징되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유분방하고 감각적인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을 이공계통과 기초의학분야로 이끌기는 힘들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실험실 문화에 대하여 대학 외부의 사람들이 도리어 칭송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간배아복제실험의 성공이라는 세계적인 연구가 발표된 모 실험실에 대하여 국내외 매스컴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하였다. 이 실험실의 교수와 학생들이 이런 높은 업적과 열정을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이런 보도내용을 보는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답답하다. '항상 실험실에서 먹고 살며, 한 달에 한 번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가는 학생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의사가 되었지 연구를 하겠느냐는 당찬 학생,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모두 대학의 몫이고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고고한 교수'의 모습들을 보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뛰어난 결과가 나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국내의 매스미디어들... 필자는 히딩크가 등장하기 전의 한국 축구에 대한 보도가 생각났다. 제대로 된 투자와 훈련 없이 정신력만 강조하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한국이었다. 한국 축구를 진단한 히딩크가 기초체력이 부실하다고 대표팀에게 체력 훈련을 했을 때 쏟아졌던 엄청난 비난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정신력만 강조해서는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이공계와 기초의학 실험실은 제대로 된 지원 없이 밤낮 없이 연구하는 정신력을 최우선으로 치는 풍토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어떤 젊은이들이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실험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 현실, 특수한 경우에만 스타 과학자가 되는 상황에서 실험과 연구에 자신의 젊음을 불태울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좌절할 상황은 아니다. 외국의 대학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세계적인 과학기술자가 양성되길 소망하면서, 제자의 발을 힘껏 머리 위로 올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꿈을 필자는 지금도 꾸고 있다. 



글쓴이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유전체 및 단백질체 환경독성과학센터 센터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과 주임교수를 겸직하고 있다.